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통해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 왕이심을 나타내신 예수님 [누가복음 19:28-40]

설교자: 마티아스 샷트 (Matthias Schat)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9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30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31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32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대로 만난지라 33 나귀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새끼를 푸느냐 34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35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나귀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36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겹옷을 길에 퍼더라 37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9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젠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때가 가까워 졌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자신이 구약에서 오래전에 약속된 이스라엘 메시아 왕이심을 보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의 참된 메시아 왕임을 나타내십니다.

1, 겸손하신 왕

오늘 설교본문 29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람원이라는 산에 오셨는지에 대해 읽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30절에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일러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 당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의 말을 따랐고 예수님은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왜 이런 일을 허락했을까요? 그것은 스가랴 9:9에 약속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들의 왕은 겸손하여 나귀를 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찌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찌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스가랴 9:9). 이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 분은 겸손의 왕으로 그의 백성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귀영화나 권력 또는 명성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자신의 삶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 우리 모두는 생명을 얻고 죄 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분의 백성들로서 동일하게 겸손을 구하고 또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그 분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긍휼을 전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2, 참된 평화를 가져오신 왕

예수님 주변을 맴돌며 그 분을 따르던 군중들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합니다. *'28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 118:26).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셨을 때 흥분과 찬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군중들은 자신들이 내뿜은 소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소리쳤습니다. 스가랴 9:10은 오실 메시아 왕 그리고 그 분께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평화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10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끌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9:10).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누가복음 19:42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비통해하시며 슬퍼 우십니다. 그들이 메시아 왕을 거절함으로 평강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평강의 예수님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내려짐으로 죄의 삶이 지불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가슴 벅찬 찬양 드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3, 찬양받기 합당하신 왕

오늘 설교본문 38절에서 예수님 주변에 군중들이 예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 중 몇몇은 예수님께서 영광과 찬양받으시길 싫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군중들을 꾸중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분께서는 군중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40).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군중의 찬양의 환호소리는 옳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그 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 분께 찬양 드리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분께서 우리들을 위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분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맞이할 고난 주간과 부활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도 이와 동일하길 소원합니다.